

# OPEC動向과 전망

金 乾 治  
(대한석유회회 홍보실장)

미래학자인 허만 칸은 지난 80년 OPEC (石油輸出國機構)가 80년대 중에 붕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석유의 수요감퇴와 공급과잉, 非OPEC산유국들의 증산등을 OPEC 와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최근의 상황은 이와 같은 허만 칸의 예언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연합 石油相은 OPEC회원국들이 산유권터 및 공시가격을 무시하고 있어 OPEC의 산유량 및 가격구조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말하고 『회원국들은 공시가격과 할당량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록 오타이바 石油相의 선언이 OPEC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해명도 뒤따랐지만, 최소한 이 발언은 OPEC가 카르텔로서의 구속력을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같은 발언을 OPEC 붕괴의 공식확인인 동시에 대폭적인 油價인하를 예고한 「폭탄선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분석가들은 이같은 발언이 非OPEC 산유국들에 대한 경고이며, OPEC 및 非OPEC 간의 油價타협효과를 노린 전술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사실 OPEC의 無力化는 어떠한 獨占카르텔도 시장기능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경제법칙의 살아있는 例라 할 수 있다. 과도한 油價인상은 결과적으로 非OPEC의 공급량을 상대적으로 늘려 이제 OPEC는 세계수요의 3분의 1밖에 공급하지 못하게끔 시장지배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景氣침체로 인한 수요감소와 소비절약 및 代替에너지개발로 인해 전체 수요마저 크게 감소시켰다.

현재 非OPEC산유국들의 산유량은 OPEC에 비해 1.5배가 많으며, 특히 英國, 노르웨이등 北海산유국들의 현물시장을 통한 원유판매는 OPEC의 판매부진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OPEC회원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 아랍산유국들

은 非OPEC산유국들이 산유량과 油價협조 제 타협을 거부할 경우 「價格전쟁」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번 오타이바石油相의 발언을 OPEC의 붕괴로 곧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非OPEC산유국들과 산유량 및 油價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고심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非OPEC산유국들의 위협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OPEC내의 自中之亂이다. 금년들어 3차례의 石油相회의를 통해 OPEC가 처한 위기타개의 묘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한 것은 이같은 OPEC내의 복잡한 사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지난 10월초 빈에서 열린 OPEC총회에서는 산유쿼터 배분조차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회원국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OPEC회원국들의 바터制·할인판매·초과생산등 이탈행위는 벌써부터 자행돼 왔으나, 최근에 사우디마저 이에 가담함으로써 창설 25주년을 맞은 OPEC는 구심점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OPEC회원국들은 收入감소에 따라 산유량제한과 公示가격유지가 어려운 궁지에 몰려 스스로 가격경쟁제도로 복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12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릴 총회에서 OPEC의 向方이 결정되겠지만, 이미 이 기구가 제대로 기능, 수년전의 原狀으로 회복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며, 당분간 가격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OPEC회원국간의 이해상충 및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트백가격 실시 등을 고려할 때, 생산조절에 의한 OPEC 공시가격의 현수준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근거로 DRI는 1986년초에 약 1달러 정도 인하될 것이며, 1986년에 OPEC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1987년초에 또 다시 50센트 정도의 油價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1987년

후반부터는 꾸준한 OPEC원유수요의 증가로 反轉되어 1988년부터는 油價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 1990년에는 배럴당 30달러 50센트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전망한 PEL에 따르면 1986년에 油價의 대폭적인 인하가 단행될 경우, 그리고 경제성장은 활발하나 순환적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에너지정책도 단기적 대응을 위주로 할 때에는 1990년까지 22~24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油價의 안정적 변화와 경제의 활발하고 안정적 성장속에 에너지정책도 장기적·지속적 대응에 중점을 두게 되면 1986년에 24달러로 떨어진 후 1990년까지 25달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EFA의 전망치는 DRI와 PEL의 중간치에 속하나 1987년부터 소폭이나마 油價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또 최근에는 앞으로 가격인하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原油價는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성급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 사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 石油相도 최근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현행 배럴당 26달러선에서 18달러로 인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어 10달러대로의 하락이 허황된 전망만은 아닐지 모른다.

주요전문기관의 油價전망을 검토해 볼 때 원유가격은 1986년에는 배럴당 1~5달러 정도 하락하게 되고, 일단 인하된 油價는 2~3년간 큰 변동없이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80년대 말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油價에 관한 전망이 그대로의 中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石油에 관한 가장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말뿐」이라는名言(?)까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

